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1. 20	11. 27	12. 04
대 표 기도	김효중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효중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1월 축복인사 - 성도님 힘내세요(성도 간에)
아하자(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감사 - 말씀을 전해주시는 맹기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담임목사님은 한국 방문 중에 계십니다.
4. 청년 소 모임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윤미경 자매(13일)	
조정화 성도(14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20
감사헌금	100
십 일 조	200
합계(Euro)	320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맹기현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539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장래황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창세기 3:1-6 (1. MOSE 3:1-6)	장래황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맹기현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맹기현 목사
설 교 Predigt	선악과를 따먹다	맹기현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맹기현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효종 집사

†기도제목

1.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2.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3.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4.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남아 있는 것을 기억하라

내 친구 Conny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코니는 한동안 내 시력을 부러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런 자신의 마음에 대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주신 위로의 말씀에 생생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코니 내가 Marva에게 시킨 일을 하기 위해선 마르바의 시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네게 맡긴 일에는 네 눈이 꼭 필요하지 않다” 코니는 현재 시각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게 맡긴 일을 위해서는 네 발이 꼭 필요하지 않다” 코니의 통찰력이 내게 책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해주었습니다. 나는 군과 노외와 손가락의 기능이 남아 있는 한 내게 맡겨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불편한 다리와 잃어가는 시력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면 상실감을 극복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또한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것을 최고라고 인정해주면서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메워주는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절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쁘게 누군가의 눈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열매와 상급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채우시는 음성 / (故) Marva Dawn
(2021년 4월에 소천한 영성신학자, 종교음악가)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선악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란?